

# “불교 근본주의자, 남아시아서 종교분쟁 주도한다”

## 허핑턴포스트, 남아시아 불교 민족주의 집중 보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불교 국가들이 ‘종교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며 이슬람교 등 타종교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경향의 중심에는 ‘불교 근본주의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주목받고 있는 <허핑턴포스트> 지가 최근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유혈 갈등에 주목하고, “이들 세 나라의 ‘불교 민족주의’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적 폭력을 서양에 알리고 있는 마웅 자르니(Maung Zarni) 씨의 런던대학 특별강연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서 불교는 주류 종교로서 ‘종교적 민족주의’ 성향은 물론 ‘독단적’이고 ‘호전적’인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이지만, 이들 세 나라에서는 실상 그렇지 않은 셈이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도인 스리랑카의 경우, 보두 발라 세나(Bodu Bala Sena, 이하 BBS)가 ‘종교 민족주의’의 정점에 서있다.

스리랑카 이슬람 위원회(Sri Lanka

Muslim Congress)에 따르면 BBS는 2013년도에만 241명의 이슬람교도, 61명의 기독교도에게 위해를 가했다. 지난 2012년 스리랑카의 불교문화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보두 발라 세나’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미얀마에서는 작년 한 해만 300여 명의 이슬람교도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사망했다. 이들 이슬람교도들은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의 후손인데, 집단 학살 방지를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 ‘제노사이드 감시(Genocide Watch)’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미얀마 땅을 밟은 이래 지금까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300만여 명이 사망했다.

<허핑턴포스트> 지는 미얀마 종교 분쟁의 중심으로 ‘불교 근본주의자’인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스님을 주목하고,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민 자체를 ‘이슬람교도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불리고 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타임즈(Times)> 지의 커버스토리에 게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타임즈(Times)> 지는 ‘The Face of Buddhist Terror’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타임즈(Times)> 지의 커버스토리에 게재된 인물인 아신 위라투 스님. 태국 종교 갈등의 정점에서 있는 인물로, “태국 내에서 이슬람교도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 왼쪽). 스리랑카에서 종교 갈등은 ‘보두 발라 세나(Bodu Bala Sena)’ 등 ‘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불교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불교도의 이슬람 사원 공격을 계기로 벌어진 이슬람교도의 항의 집회.



태국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조직은 없지만,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법(blashemy law)이 종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가 종교로 공인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사실상 타종교인에 대한 불교도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마웅 자르니...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종교폭력 서양에 알려

“불교가 종교적 민족주의, 독단·호전적 모습 보여”

스리랑카... 인구 70% 불교국, 종교 민족주의 ‘정점’

미얀마... 아신 위라투 스님 중심으로 이슬람 폭력 조장

당시 아신 위라투 스님은 “급진적인 스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고, 미얀마 정부는 <타임즈> 지의 해당 판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불교도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5000여 명의 이슬람교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허핑턴포스트> 지에 따르면 태국 불교

계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조직은 없지만,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법(blashemy law)이 종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가 종교로 공인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사실상 타종교인에 대한 불교도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들 세 나라에서 ‘불교’ 또는 ‘불교도’란 의미는 ‘내 믿음’ ‘내 민족’ ‘내 조국’ 일 뿐”이라고 지적한 마웅 자르니 씨는 “세 나라 모두 비 불교도에 대해 ‘불교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태국은

불교도 중심의 급진적 인종차별주의로까지 번진 미얀마와 스리랑카와는 다르다”고 분석하고, “태국 불교계가 항구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며 여론을 남겼다.

스리랑카, 미얀마에는 소위 ‘안티 다르마 불교 네트워크(anti-Dharma Buddhist network)’라고 부를만한 조직들이 있으며, 전염성이 강한 독감과 같이 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허핑턴포스트> 지는 “근본주의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을 설명할 때 덧붙였지만, 이제 불교나 불교도를 설명할 때도 적극 인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마웅 자르니 씨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불교와 이슬람교의 적대적인 관계는 13세기 인도를 침략한 투르크 군이 나란 다 대학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수천의 스님들을 학살했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이 바미얀 대불을 폭파했다는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답습되고 있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태국 불교계의 프라마하 본추야 도자이(Phramaha Boonchuay Doojai·치앙마이 불교대학 수석 교수) 스님의 분석도 인용하며, “지금이야말로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전개되어, 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분쟁의 막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비보이 춤으로 뉴욕 사로잡은 티베트 스님들

### 불심 깊은 아담 요크 추모...

### 티베트 독립 염원

티베트의 젊은 스님들이 미국 심장부 뉴욕을 비보이(b-boy) 춤꾼으로 나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웹프로뉴스> 지는 6일 “2014 MCA DAY 행사에서 4명의 젊은 티베트 스님들이 브레이크댄스를 선보이며, 세계 각국의 춤꾼들은 물론 행사 관람을 위해 거리로 나선 뉴욕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보도했다.

‘MCA DAY’는 세계적인 힙합 그룹이었던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의 리더 아담 요크(Adam Yauch·1964~2012)를 기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춤꾼들이 뉴욕에 모여 추모식과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행사다.

<웹프로뉴스> 지는 “바비(Bobby), 크리



2014 MCA DAY를 맞아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4명의 젊은 티베트 스님들이 브레이크댄스를 선보이며 2년 전 타계한 불심 깊은 비보이 아담 요크(Adam Yauch)를 추모하는 한편 ‘티베트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

스토퍼(Christopher), 스테판(Stephen), 그로엘(Groelle)로 자신들은 소개한 티베트 스님들은 티베트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아담 요크를 추모하고, 그가 항상 기원했

던 ‘티베트 독립의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연을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 젊은이들, 불교서 ‘조화·균형’ 찾는다

### <인민일보>, 불자 선언 트렌드 확산

중국 대륙 최대 경제 도시 상하이의 불심이 깊어지고 있다. 영국의 국제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지는 5월 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Shanghai)의 젊은 화이트 컬러들이 ‘불자임을 선언’ 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또한 “상하이 부유층들이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속속 불교에 귀의한 것이 첫 단초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조화’와 ‘균형’을 기원하는 첫 걸음으로 귀의하는 화이트 컬러의 예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지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100km 떨어진 양청(Yangcheng) 호수 인근 총위안(Chongyuan) 사원의 석가탄신일 기념법회는 변화되고 깊어지는 ‘상하이의 불심’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날 미아오치(Miaoci) 스님 등 50여 명의 양청 사원의 스님들이 새벽 4시 30분부터 서두른 석가탄신일 기념법회 준비과정에는 사원의 재적 신도가 아닌데도 기념법회 준비에서 성료까지 함께 한 젊은 불자들이 있었다. 중국의 최대 보험회사 사원들이었다.

“그들에게 상사는 부처님”이라고 말한 미아오치 스님은 “보험회사 대표가 독실한 불자이기는 하지만 총위안 사원과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젊은 화이트 컬러 불자들이 이곳에서 석가탄신일 기념법회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의 사원 중에서 규모가 큰 사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2013년 자신을 불자로 선언하는 트렌드를 앞서는 트렌드는 없었다”는 <인민일보(People’s Daily)> 지의 보도를 인용하고, “상하이의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



중국 상하이의 젊은 화이트 컬러들 사이에서 자신이 불자임을 선언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

는 과정에서 속속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는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 지의 보도에 힘을 실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불교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그들의 심심에 부흥해 활기찬 불교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미아오치 스님은 말을 인용하고, “석가탄신일 당일 총위안 사원의 기념법회에 참여한 500여 명의 재가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이라도 하듯 20대부터 60대까지 고령 분포를 보였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범석

## 世界佛敎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흙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